



존재론적 접근을 통한 포스트-진실 시대의 언론의 윤리적 태도 연구

주형일 영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Exploring Journalism Ethics in the Post-Truth Era using the Concept of Ontological Truth*

Hyungil Joo**

(Professor, Department of Media and Communication, Yeungnam University)

This article proposes to approach the ethics of journalism through the concept of ontological truth. Until now, the concept of truth as correspondence has been central to the construction of objectivist journalism, and the concept of truth as coherence has underpinned investigative journalism. The concept of truth as utility is the foundation on which public journalism rests. These three kinds of truths are epistemological because they are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ments and objects. Based on Heidegger's concept of truth, this article refines the concept of ontological truth by referring to the new materialism's concept of performativity and the arguments of ontological turn. Ontological truth presents the actor's world as the meaning-event that emerges during the actor's interaction with other actors. Ontological truth is how an entity reveals itself through events. The journalistic ecosystem is where different media with different truths collide, translate and coexist. The fact that each journalistic medium has its truth means that each medium creates its meaning-event to build its world. It is not that there are many opinions with various views on one event, but that there are various events with multiple meanings. The meanings-events of individual media, that is, the truths of individual media, are different. There is no absolute truth that all journalistic media must admit. No truth or world can be agreed upon or shared through discussion. The journalistic ecosystem is not a universe but a multiverse. In this situation, the core of the ethical attitude that the individual journalistic media should adopt is not to be disconnected from other media and to try to translate the truth of other media. Each medium should always connect with other actors to reveal their meanings-events and translate the meanings-events of other media. The meaning-event is not fixed, but fluid. It continues to change within the interaction between the actors. If the meaning-event is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2022 Yeungnam University Research Grant(이 연구는 2022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 spdm@yumail.ac.kr

fluid, so is its translation. In the permanent interaction with the actors, the individual journalistic medium reveals itself as a phenomenon, creating both event and meaning. The ontological truth is thus neither a goal for journalism to pursue nor a standard by which to determine whether journalism is appropriate. It is the basis that enables journalism and the place where the existence of journalism is revealed. The journalistic media must continue to strive to maintain homeostasis in the journalistic ecosystem. They must build relationships with other media and audiences. They should strive to translate and understand the truths of other media. This is the ethical attitude that journalism should have.

Keywords: ontological truth, journalism ethics, objectivity, aletheia, performativity

1. 들어가며

‘포스트-진실(post-truth)’은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 구별되는 진실이 존재한다는 믿음이 사라진 현상을 지시하는 말이다. 지금까지 언론윤리를 지배해 온 가장 중요한 가치는 ‘언론은 진실을 말해야 한다’였다. ‘포스트-진실’의 시대에 이 언론윤리의 핵심적 가치가 사실상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람들은 흔히 언론의 전통적인 가치인 객관성, 공정성, 진실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들의 구현을 방해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최근 논란이 되는 가짜뉴스가 그런 것이다. 그들은 가짜뉴스의 정체를 밝히거나 규제하고 억제할 수단을 만들면 다시 언론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치인, 언론인, 시민 등이 각성하면 객관성, 공정성, 진실성이란 언론의 소중한 가치는 언제든지 회복 가능하다는 것이다(성한용, 2019; 이재경, 2019).

그런데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상황을 살펴보면, ‘포스트-진실’ 문제는 1970년대부터 시작된 ‘포스트-00’(포스트-구조주의,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휴머니즘, 포스트-포스트그래피 등)이라는 시대정신 안에서 이해될 수 있다. ‘포스트-00’의 시대정신은 기본적으로 이성을 가진 주체와 관찰되고 이용되는 대상 사이의 뚜렷한 분리를 기반으로 하는 명확하고 단일한 재현(representation)이 더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포스트-진실’ 현상은 이런 시대정신이 언론 활동과 관련된 영역에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포스트-진실’과 관련된 논란이 가짜뉴스의 유행으로 발생한 국지적이고 피상적인 사건이 아니라 ‘포스트-00’의 시대정신이 언론 영역에서도 발현된 현상이라면, ‘포스트-진실’ 시대에 언론이 어떻게 존재해야 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기존 언론윤리 담론과는 다른 관점에서 전개될 필요가 있다. 기존 담론에서 언론은 진실을 말할 책무를 지닌 사회적 공기로 이해되어왔다. 하지만 언론이 다루는 진실 개념을 지지하는 재현의 논리에 대한 근본적 물음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진실 개념과는 다른 진실 개념을 찾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문화 현상과 관련해 우리가 가진 대상에 대한 지식은 불변하는 진실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된 담론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보여준 푸코(Foucault, 1966/2019)에서부터 육체를 통해 드러나는 성적체성조차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역할 수행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한 버틀러(Butler, 2006/2008)에 이르기까지, 1960년대 이후 수많은 인문 사회과학적 연구들은 인간 주체가 이성적 능력을 이용해 대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대상의 실체에 대한 유일한 진실을 발견한다는 믿음이 환상일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더구나 최근에 논의되는 존재론적 전회(ontological turn)에서는 유일한 진실에 대한 다른 관점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서로

다른 진실들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나타난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의 행위를 통해 구성되는 사회문화적 현상과 관련해 유일한 절대적 진실이 있으며 주체의 이성적 활동을 통해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는 태도가 유독 언론 영역에서 강하게 관찰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20세기 초에 절대적 진실이 있으며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언론윤리 담론이 고안된 지 100년이 넘었다. 언론윤리 담론의 발명은 당시 서구 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환경 안에서 진행됐다. 환경은 바뀌었고 진실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변하고 있다. 현재의 시대 상황에 적합한 언론의 윤리적 태도에 대해 새롭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포스트-진실과 관련된 논의를 기존과는 다른 관점에서 전개하기 위해 우리가 언론윤리를 이야기할 때 흔히 기대는 진실 개념과는 다른 진실 개념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기존의 언론윤리 담론이 구성된 과정과 기존의 담론이 현재 변주되고 있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언론윤리 담론이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당위 명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기존 언론윤리 담론에서 언급하는 진실 개념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으로부터 어떤 언론 담론이 구성되었는지를 정리한다. 새로운 언론윤리 담론을 구성하기 위한 이론적 정지작업으로 기존의 세 유형의 진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의 진실 개념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새로운 유형의 진실 개념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언론의 윤리적 태도에 대한 전반적 윤곽을 제안한다. 이 제안은 물론 완성된 이론이라기보다는 추후 연구를 이어가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탐사적 모색의 성격을 가질 것이다.

2. 언론윤리에 대한 전통적 담론의 구성과 변주

언론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언론은 처음부터 정치적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등장했고 운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문의 효시로 일컬어지는 기원전 로마의 ‘악타 디우르나’나 ‘악타 푸블리카’, 중국의 ‘저보’ 등은 모두 정부의 권력 행사를 위한 정보 전달 수단이었다. 17세기부터 유럽에서 인쇄술의 발달로 본격적으로 등장한 근대 신문은 정치적 이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대중을 설득하기 위해 동원된 정론지(政論紙)였다. 근대 유럽에서 언론은 권력 투쟁의 한 복판에서 치열하게 사상적 전투를 벌이기 위한 무기였다. 정부는 허가제 등을 통해 언론을 통제

하면서 권력 유지에 유리한 방식으로 언론 지형을 구성하고자 했다. 반면에, 저항 세력은 자신이 운영하는 언론을 통해 정치 권력과 사회 체제를 비판하고 새로운 사상을 유포하면서 권력 획득을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집권 세력의 억압에 맞서 싸우며 권력 탈취를 도모하는 세력이 언론의 정치적 파괴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세운 개념이 바로 언론자유 개념이다²⁾. 미국 독립 전쟁,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 언론은 새로운 정치 체제의 확립을 위한 이념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역할을 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고 결성된 국민의회에서 채택한 인권선언에서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명기한 것은 이런 투쟁의 결과였다. 오늘날에도 기존 정치권력에 대항하는 세력이 항상 가장 먼저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언론의 자유이다. 이것이 확보되어야만 권력 획득을 위한 이념 투쟁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르주아 혁명을 거쳐 자본주의에 기반한 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서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확립되면서 언론은 중요한 사회 기구이자 산업이 되었다. 권력 획득을 위해 자신들이 만들었던 언론자유 개념을 이제 와 부정할 수 없었던 부르주아 계급은 언론자유와 병립할 수 있는 언론 통제 방법을 고안해야 했다. 언론인들 또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이념적 장치를 가질 필요를 느꼈다. 이는 언론윤리 개념이 이런 필요 때문에 등장했다고 본다.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을 윤리라는 명목으로 통제하고자 한 최초의 시도는 1889년에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윌리엄 릴리(William Lilly, 1892)는 1889년 ‘언론윤리(The Ethics of Journalism)’라는 논문에서 아무것도 말할 수 있는 언론자유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부조리 중에서 가장 허황하고 가장 멍청한 것”(p. 163)이라고 주장하면서 언론자유는 “사실을 말하고 사실에 대해 논하며 남용을 고발하고 개혁을 지지”(p. 165)하기 위한 자유라고 말했다. 또한 “진실은 평균적인 언론인이 고려해야 하는 마지막 것”(p. 167)이라며 언론윤리를 진실의 문제와 결부시켰다. 이후 언론윤리에 대한 논의는 당시 언론이 보여주던 선정성과 부정직함에 대한 비판에 집중되었다. 1890년대의 미국은 상업성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대중신문이 만들어내는 황색언론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여겨지기 시작한 사회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1918년 프랑스 전국언론노조(Syndicat National des Journalistes)에서는 자체적으로 ‘프랑스 언론인 직업 의무 헌장(Charter des devoirs professionnels des journalistes

2) 언론자유 개념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상황에 의해 그 의미가 규정된다. 예를 들어, 언론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근거를 ‘진실은 반드시 거짓을 이긴다는 원리에서 찾음으로써 언론자유에 대한 경전으로 간주되는 <아레오파지티카>에서조차 밀턴(Milton)은 자신이 거짓이나 악이라고 단정한 의견(예를 들어, 가톨릭교의 교리)은 표현될 자유를 누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Milton, 1644/1998, 156쪽). 결국, 언론자유는 그 자유를 요구하는 세력의 권력을 유지하거나 확장할 때만 유용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français)’을 만들어 언론인이 지켜야 할 직업적 의무를 제시했다. 1938년에 수정된 이 헌장은 기사에 대한 책임, 사실 왜곡이나 조작 금지, 금품수수 금지, 표절 금지, 직업상의 비밀 유지, 양심과 정의에 따르는 행동 등을 언론인의 의무로 제시했다³⁾. 이 헌장은 언론 일반의 추상적 의무가 아니라 언론에 종사하는 직업인으로 지켜야 할 구체적인 의무 사항을 명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언론이 직업인을 고용해 운영되는 하나의 기업이 되었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언론이 기업으로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해나갈 수 있게 되자 언론인 양성을 위한 대학 교육이 조직되기 시작했고 다양한 유형의 언론윤리가 고안되기 시작했다(김춘옥, 2008). 1920년대 미국 언론이 채택한 윤리 강령의 핵심 개념은 책임, 자유, 독립, 정직, 정확, 불편부당, 공정, 품위였다(Ferré, 2008, p. 34). 오늘날 이야기되는 언론윤리의 핵심 개념이 이미 거론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970년대 말부터는 미국 학계에서 언론윤리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됐다. 이 연구로부터 진실성, 객관성, 공정성 등과 같은 개념이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언론윤리의 핵심으로 구성되었다(김춘옥, 2008). 의무론, 자유주의, 공리주의, 공론장이론, 사회책임주의, 공동체주의 등 관점에 따라 언론윤리를 논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진실성, 공정성, 객관성이라는 가치는 언론이 추구해야 하는 핵심으로서 꾸준히 논의되어 오고 있다.

이처럼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걸쳐 형성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언론윤리에 대한 담론은 크게 두 개의 구분되는 영역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금품수수, 표절, 왜곡이나 조작, 비밀 유지 등과 같은 확인이나 검증 가능한 언론인의 구체적 행위에 대한 지침으로서의 언론윤리에 대한 담론이고, 다른 하나는 진실성, 공정성, 객관성, 불편부당성 등과 같이 확인이나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한 추상적 가치에 대한 지침으로서의 언론윤리에 대한 담론이다. 이 둘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명확히 구분되는 담론이지만 실제 언론윤리를 논의하는 상황에서는 구분되지 않은 채 뒤섞여 제시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금품수수가 공정성이나 불편부당성과 관련된 윤리위반으로 이해된다거나 왜곡이나 조작이 진실성, 객관성과 관련된 윤리위반으로 거론된다. 언론인이 기사에 책임을 지면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지 않고 왜곡과 조작을 하지 않는다면 진실성, 공정성, 객관성, 불편부당성 등의 윤리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셈이다.

서로 다른 층위의 담론을 이처럼 뒤섞음으로써 특정한 정치적 효과가 발생한다. 즉, 구체적인 잘못을 저지른 것이 확인되지 않거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규제를 실행 중인 언론은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진실한 언론이라는 평가와 생각이 만들어진다. 어떤 언론이 공정하거

3) <http://www.snj.fr/article/charte-des-devoirs-professionnels-des-journalistes-français>

나 객관적이거나 진실하지 않다면 그것은 그 언론에 종사하는 언론인의 품행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언론인의 품행이 올바르고 정직하고 품위가 있다면, 그가 종사하는 언론은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진실한 언론이다. 이러한 언론윤리 담론은 언론인에게는 품위 있는 직업인이라는 지위를 부여하고 언론에게는 정치적 권력 투쟁의 도구나 권력의 행사자가 아니라 권력의 감시자라는 명예를 제공한다. 이런 언론윤리 담론을 통해 옳지 못한 가짜, 사이버 언론과 언론인에 맞서는 옳은 진짜 언론과 언론인이라는 대립 구도가 완성된다. 이에 따라, 언론윤리를 실현하는 문제는 가짜 언론과 언론인을 슈아내기 위한 규제법을 만들거나 언론사나 언론인들이 자정 운동을 벌이는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담론이 지배적인 것이 되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보자. 17세기부터 권력 투쟁을 위한 강력한 무기로 사용되기 시작한 언론은 19세기를 지나면서 영리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형태로 자리 잡았다. 19세기 말에 언론이 직면한 문제는 17세기부터 증명된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어떻게 상응적인 대중성과 조화롭게 공존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언론자유 개념이 언론윤리 개념으로 대체되었다. 이것은 한국 언론의 상황을 살펴보면 좀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한국 언론은 20세기 초부터 20세기 말에 걸치는 짧은 기간 동안 정치투쟁의 도구에서 영리기업으로 급속히 변모했기 때문이다.

일제의 식민지배 기간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한국 언론은 식민 기간에는 식민지배에 대한 저항의 도구이거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수단이었고 해방 이후에는 다양한 정치 세력의 권력 획득을 위한 투쟁 도구였다. 그 후 군부 독재 기간에는 정권의 홍보 수단이거나 저항 수단으로 역할을 했다. 민주화 이후 언론은 본격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면모를 나타냈다.

20세기 내내 한국 언론은 권력에 대한 순응이나, 저항이냐는 관점에서 접근되었고 언론인은 지사이거나 부역자의 역할을 자처했다. 이 시기에 한국 언론의 담론에서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던 개념은 ‘언론자유’였다. 흥미롭게도 1989년을 기점으로 언론에 대한 담론에서 ‘언론윤리’가 ‘언론자유’를 대체했다(남재일, 2010, 84쪽).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정권에 대한 저항 투쟁의 강도가 약해지고 언론이 기업으로서의 영리활동에 점차 몰두하면서 언론자유가 아닌 언론윤리가 강조되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언론윤리에 대한 논의는 금품과 향응 수수, 이권 개입, 선정 보도 등에 집중되어 있었다. ‘구체적 행동윤리’를 제시하면서 전문직 이데올로기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언론윤리 담론이 작동한 것이다(남재일, 2010).

그런데 남재일(2010)은 한국의 언론윤리 문제를 언론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지사적 기자와 직업인으로서의 태도를 강조하는 ‘전문직업인 기자’ 사이의 대립 문제로 해석한다. 남재일(2010)은 현대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언론의 기능이 “자유를 위한 투쟁이 아니라 국

민에 대한 친절한 봉사로 옮겨갔다”(88쪽)고 지적하면서 언론윤리도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에서 벗어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직업윤리를 실천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언론인들이 ‘지사적 기자’의 역할에 머물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한다. 현재 한국 언론이 특정 정치 세력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정파성을 보여주는 것도 과거의 ‘지사적 기자’ 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라는 것이 남재일의 주장이다. 그래서 남재일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전문직 윤리를 세우고 실천한다면 객관성, 공정성, 진실성과 같은 가치가 구현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런 믿음은 부패하지 않은 올바른 언론인에 의해 공정성, 객관성, 진실성과 같은 언론윤리의 핵심 가치가 구현될 수 있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남재일, 2010).

포스트-진실의 시대라고 불리는 현대도 전통적 언론윤리의 핵심 가치는 힘을 잃지 않는다. 단지 변화하는 상황이 그 가치들을 구현하는 것을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고 여겨진다(이준웅, 2017; Carlson, 2018; Carson & Farhall, 2018; Waisbord, 2018). 예를 들어, 칼슨(Carlson, 2018)은 언론이 정치권력과의 관계에서 두 가지의 서로 모순되는 위치를 점유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고 본다. 언론은 정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생산, 유통한다는 점에서 정치권력의 중심에 있지만 동시에 정치권력에 대한 중립적인 관찰자 내지는 감시자의 역할을 표방한다는 점에서 정치권력의 외부에 위치한다. 칼슨이 보기에는 언론윤리와 관련된 두 가지 원칙이 바로 정치권력과 언론이 맺는 이 모순적 관계를 은폐하거나 봉합하기 위해 사용된다. 하나는 언론인에게 전문가로서의 기술과 품위를 요구하는 전문직주의(professionalism)이고 다른 하나는 언론인이 가질 수밖에 없는 주관적 판단을 상쇄할 수 있는 객관성에 대한 호소이다. 하지만 이런 언론윤리의 규범들은 그것들이 내포한 이상적 목적과는 달리 실제로는 항상 언론과 언론인을 정치로부터 분리하는 데 실패한다(Carlson, 2018, p. 1882). 칼슨이 보기에, 포스트-진실의 담론은 바로 언론이 가진 이 취약점을 공격하면서 구성되었다. 그는 가짜뉴스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포스트-진실의 담론이 전통적 언론에 대한 공격이자 적대적 담론이라고 주장한다(Carlson, 2018, p. 1883). 이런 주장에 기반하게 되면, 포스트-진실의 시대에 언론이 해야 할 일은 적대적 담론에 맞서 언론의 권위를 지켜내는 일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양질의 기사를 쓰는 동시에 외부적으로는 적대적 담론에 맞서 적극적으로 언론의 위치를 재확인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객관성이란 이름 아래에서 ‘어무것도 아닌 관점(the view from nowhere)’을 택함으로써 스스로 권위를 훼손하기보다는 공중의 관점, 시민의 관점을 명시적으로 택하고 실수나 잘못을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Carlson, 2018, p. 1885).

포스트-진실의 시대는 언론을 둘러싼 환경을 복잡하게 만들었지만, 언론은 내부적, 외부적인 윤리의 강화를 통해 변하는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난 100여년 동안 되풀이되어

은 언론의 위기에 대한 담론의 연장선에 있다. 이것은 항상 기존 언론에 대한 신랄한 비판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오래된 언론윤리 개념들을 변주하는 방식으로 끝남으로써 언론의 권력을 재확인하고 유지, 보수하는 기능을 한다. 예를 들어, 김수미(2019)는 포스트-진실의 시대에 정치권력과 결탁한 언론의 폐해를 상세히 열거하면서 포스트-진실 시대의 가짜뉴스 문제가 “부정확한 정보와 순진한 독자”(67쪽)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가 보기에, 포스트-진실 시대의 핵심적 문제는 “진실의 파악과 공유라는 공동의 윤리적 실천을 촉진하는 통합과 공통성의 가치가 쇠퇴하는 정치 문화”(94쪽)이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진실 말하기’라는 주체의 윤리적 실천에서 찾아야 한다. 김수미는 언론인이 “진실을 추구하고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이성적 개인”(96쪽)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체제 안에서 사는 불안정한 직업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그들에게 진실을 말할 것을 주문함으로써 결국 오래된 언론윤리의 담론을 되풀이한다.

3. 언론의 세 가지 진실

언론에서 사실, 진실, 현실은 신성한 단어(god-terms)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Zelizer, 2004, p. 100) 언론인에게는 중요하게 취급된다. 전통적인 언론윤리의 담론 안에서 진실을 말한다라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사실을 정확히 보고한다는 의미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생각은 “6명의 기자가 법정에서 입을 수 있다. 그들은 6시간 동안 법정에서 하는 말들을 들으며 앉아 있을 수 있다. 그들은 같은 이야기를 듣고 나올 것이다”(Bird & Dardenne, 1988, p. 67)라는 말을 통해 극명히 드러난다. 언론의 콘텐츠를 분석한 많은 사례 연구들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언론들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사실상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지만, 사실 말하기, 진실 찾기와 관련된 언론의 담론은 변하지 않는다. 포스트-진실의 시대에 전통적 언론에 대한 공격이 강화되자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언론이 사용한 대표적 방법이 ‘팩트체크’라는 것은 이 점을 잘 보여준다. ‘팩트체크 뉴스’는 포스트-진실의 시대에 무너진 언론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고 어떻게 ‘팩트체크 뉴스’를 만드는 것이 신뢰도를 높이는 데 더 효과적일 지에 관한 연구도 진행된다(정성욱, 2021).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진실을 말하는 것이며 언론의 본질적 임무는 그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는 환상이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는 것이다.

사실을 전달한다는 것은 언론이 진실을 말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으로 이해된다. “픽션

작기는 발명해야 하지만, 기지는 발명해서는 안 된다”(Hersey, 1980, p. 25)는 말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언론은 없는 일을 꾸며 내서는 안 된다는 일종의 불문율을 잘 드러낸다. 인간적 흥미와 가벼운 오락을 위해 사건을 재미있게 운색해 보도하는 소위 연성뉴스에 치중하는 언론인은 “니쁜 언론인”으로 간주되기도 한다(Boesman & Meijer, 2018). 하지만 많은 언론인이 지적하듯이 단편적 사실을 전달하는 것과 진실을 말하는 것은 별 관계가 없으며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진실을 말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여겨지기도 한다(송건호, 2002).

엄밀히 말하자면, 언론의 오랜 역사에서 단편적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언론의 근본적 역할이었던 적은 없었다. 물론 어떤 인물이 태어났다거나 죽었다는 사실, 스포츠 경기에서 어떤 팀이 승리했다는 사실, 어떤 인물이 방문하거나 떠났다는 사실, 어떤 물질이 발견되거나 발명되었다는 사실 등 다양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전달된다. 그렇지만 우리가 언론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언론이 정확하게 제시하려 노력했던 ‘이름’, ‘수치’, ‘날짜’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그런 정확한 세부 정보들은 언론이 말하고자 하는 ‘진실’을 그럴듯하게 만드는 장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언론 기사에서 자리를 바꿔가며 반복되면서 ‘진실’을 매끄럽게 만들고 지지하는 윤희유이거나 알리바이의 역할을 할 뿐이다. 윤희유와 알리바이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적절한 것으로 교체될 수 있다. 단편적 사실에 대한 정보는 언제든지 정정보도가 가능하지만 ‘진실’을 정정하는 언론은 보기 어렵다. 버드와 다덴(Bird & Dardenne, 1988)이 잘 지적했듯이, 언론의 뉴스는 이야기하기라는 아주 오래된 문화적 실천 행위에 속한다. 모든 이야기하기가 그러하듯이, 언론의 뉴스도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서사이며, 역사처럼 과거의 사건들에 인위적인 경계를 부여하면서 조각난 사건들을 모아 의미 있는 전체를 구성한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언론윤리 담론에서 언론이 수행해야 하는 의무이자 도달해야 하는 목적으로 스스로 상정한 진실은 무엇인가? 언론윤리 담론에서 중요하게 거론되는 객관성, 중립성, 공정성 등과 같은 가치들도 궁극적으로는 진실성을 얻는 데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언론이 추구하는 진실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은 언론윤리를 이해하는 일의 핵심이 될 것이다. 포스트-진실이라는 개념이 무엇보다도 우선 언론과 관련된 문제로 이해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진실이라는 개념은 일상적 환경에서 쉽게 사용되기 때문에 누구나 그 의미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명확하게 의미를 따지기 시작하면 복잡한 문제들이 나타난다⁴⁾. 다양한 개념들을 깊

4) 유럽어에서의 truth, vérité, Wahrheit 등에 해당하는 단어로 한국에서는 진실, 진리, 참 등이 사용된다. 한국어의 진리, 진실, 참은 미묘하게 다른 어감을 가질 수 있다. 진리라는 단어를 진실이란 단어로 대체했을 때 문맥에 따라 어색한 느낌을 주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배석한(2005)은 백낙청의 주장을 예로 제시하면서 한국어에서 진리는 진실보다 무겁고 엄숙한 의미를 가진 단어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는 백낙청이 규정한 진리와 진실 개념과는

이 있게 다루는 철학이나 인문학의 역사에서도 이 개념은 아주 중요한 핵심적 개념으로 취급받았으며 복잡한 논의의 중심에 자리해 왔다⁵⁾. 이 짧은 글에서 진실 개념과 관련된 수많은 논의를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단지 내가 그동안 접해 온 진실에 대한 여러 담론을 종합해서 판단했을 때, 서로 구분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진실의 종류를 제시하면서 언론윤리와 관련된 진실 개념에 대한 나의 주장을 펼치고자 한다. 내가 보기에, 언론윤리에 대해 논의해 온 기존 담론의 기반이 되는 진실 개념과 관련해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진실을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어떤 진술이 현실과 일치할 때, 그 진술은 진실이라고 간주된다. 이것은 일치성(correspondence)으로서의 진실이다. 이 진실 개념 안에서는 진술과 일치하는 현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여겨진다. 그렇기에 진실은 인간의 주관적 생각이나 판단과는 독립된 방식으로 존재한다. 이것은 넓은 의미의 ‘사실주의(realism)’라는 관점에서 접근되는 진실이다(Haack, 1987). “이 교실에는 10명의 사람이 있다”라는 진술은 나의 주관적 의견과 관계없이 현실에서 문제의 교실에 실제로 10명의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실 여부가 가려질 수 있다. 이러한 진실 개념은 언론이 소중히 여기는 전통적인 의미의 객관성과 밀접히 연관된다. 언론인 월터 크론카이트(Walter Cronkite)가 말했듯이, “객관성은 편견과 개인적 의견의 주입 없이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현실과 사실을 보고하는 것”(Maras, 2013, p. 7)이기 때문이다. 이 현실 혹은 사실로서의 진실은 아직 발견되지 않거나 은폐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진실을 발견하고 폭로하는 것은 언론의 의무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어떤 진술이 지배적 담론에 적합한 방식으로 작성될 때, 그 진술은 진실이라고 간주된다. 이것은 일관성(coherence)으로서의 진실이다(Cohen, 1978; Lehrer, 1986). 이 경우에 진실은 실존하는 현실과는 관계없이 확인될 수 있다. 보편적이며 옳다고 여겨지는 기존의 담론은 새로운 진술의 진실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된다. 현실에서 발견되는 사실은 그 자체로는

반대되는 방식으로 진리와 진실 개념을 사용하자고 제안한다. 이런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논의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단어의 차이를 이용해 필요에 따라 진리, 진실, 참의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해서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진리, 진실, 참 사이의 미묘한 차이를 이용해 논의를 전개할 이유가 없는 이 논문에서는 그런 조작적 정의가 불필요하기에, 혼란을 줄이기 위해 모든 경우에 진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단, 인용문의 경우에는 해당 문장에 표기된 단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5) ‘The Oxford Handbook of Truth’에서는 진실에 대한 고전적 이론을 네 가지(Coherence Theory, Correspondence Theory, Identity Theory, Pragmatist Theory)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진실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소개한다(Glanzberg, 2018). ‘Internet Encyclopedia of Philosophy(IEP)’에서는 진실을 설명하는 이론을 크게 다섯 가지(Correspondence Theory, Tarski’s Semantic Theory, Coherence Theories, Pragmatic Theories, Deflationary Theories)로 구분한다(<http://iep.utm.edu/truth>). 언론과 관련된 진실 개념으로 한국에서는 이준웅(2013)이 진리대응론, 진리수축론, 진리정합론, 진리합의론을 구분한 바 있다.

진실의 가치가 없으며 오직 지배적 담론에 따라 올바르게 해석될 때만 진실의 가치를 가진다. “기자들은 자신들의 가치가 보편적이거나 지배적이라고 옳거나 그릇되게 가정할 때 객관적이라고 느낄 수 있다”(Gans, 1979, pp. 185-186). 다시 말해, ‘상식’으로 치부되는 지배적 담론에 의해 기자들의 주관적 판단이 진실이라고 정당화될 때, 언론의 객관성은 확보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일관성으로서의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은 사실에 대한 무관심한 관찰자 내지는 보고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규범에 어긋나는 불의에 분노하면서 “양심의 수호자(custodian of conscience)” 역할을 자처하게 된다(Glasser & Ettema, 1989).

세 번째, 어떤 진술이 현실에서 유용한 역할을 할 때 그 진술은 진실로 간주된다. 이것은 유용성으로서의 진실이며 기본적으로 실용주의(pragmatism) 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가 현실이나 현실에 속하는 것들을 처리하도록 돕고, 우리의 전진을 좌절시키지 않으며,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합하고, 우리의 삶을 현실의 전체 환경에 적응시키는 아이디어는 요구사항을 충분히 충족시킬 것이다. 그것은 그 현실의 진실일 것이다.”(James, 1907, pp. 146-147). 이처럼 현실 생활에서의 유용성을 기준으로 진실 여부를 판단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언론은 무관심한 관찰자도 아니고 양심의 수호자도 아니다. 언론은 현실의 삶에서 유용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실용적 객관성(pragmatic objectivity)’을 추구해야 한다. 특정한 맥락에서 특정한 유형의 문제에 유용할 수 있는 객관성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기사는 현실의 복사물도 아니고 정신적(사회적) 구성물도 아니다. 뉴스는 그 중간에 있는 것이다. (...) 실용적 객관성은 기사를 언론 제도를 포함한 사회 제도들의 건강에 흥미를 가진 사회 참가자로 간주한다”(Ward, 1999, pp. 6-7).

지금까지 사람들은 일치성으로서의 진실, 일관성으로서의 진실, 유용성으로서의 진실 개념에 각각 기대는 언론윤리 담론들을 만들어 제시해 왔다. 일치성으로서의 진실 개념은 객관주의 저널리즘 담론을 구성하는 핵심이었고 일관성으로서의 진실 개념은 탐사 저널리즘 담론을 지탱해 왔다. 유용성으로서의 진실 개념은 공공 저널리즘 담론을 구성하는 데 기반이 된다. 하지만 포스트-진실 시대에 언론에 가해진 비판과 공격은 이런 담론들에 기반한 언론 활동이 사실상 모두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이준웅(2013)은 전통적인 진실 개념에 지나치게 얽매는 것은 오히려 언론인을 궁지에 몰아넣고 언론이 사회적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진실을 언론이 추구하고 도달해야 하는 목표가 아니라 언론 활동이 가능한 토대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성공한 소통에는 진실이 내재되어 있기에 성공적인 언론 활동은 이미 진실을 실현한 것이라고 말한다(이준웅, 2013, 128쪽). 하지만 이 주장은 단지 순환론적 동어반복에 불과하며 진실이 어떤 방식으로 언론 활동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지를 명확히 설명하지는 못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준웅의 문제의식을 이어받아 언론 활동의 토대가 될 수 있는 다른 진실 개념에 대해 생각해볼 것이다.

4. 존재론적 진실

앞에서 언급한 세 종류의 진실은 어떤 진술과 그것이 재현하는 대상 사이의 관계에 대한 판단을 통해 진실 여부가 드러난다. 즉, 진술과 대상의 관계에 대한 논리적인 판단이 진실과 거짓을 구분한다. 이 판단은 진술이 대상을 일치성, 일관성, 유용성에 따라 제대로 재현하는지를 평가한다. 세 종류의 진실 개념은 기준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진술과 대상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진실 여부가 판가름 난다는 점에서 모두 인식론의 성격을 갖는다. 인식론의 관점에서 이해되는 진실은 지식의 형태로 가시화된다.

전통적인 인식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식은 기본적으로 앎의 주체와 대상 사이의 분리를 기반으로 대상에 대한 주체의 객관적인 관찰과 검증을 통해 구성된다. 관찰과 검증이 반복됨에 따라 구성되는 지식의 내용은 변할 수 있다. 과거의 지식은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되고 좀 더 정확한 지식이 새롭게 구성되는 방식으로 지식은 발전한다. 지식은 점차 진실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이 경우에, 지식에 반대되는 개념은 믿음이다. 믿음은 지식과는 달리 대상에 대한 관찰과 검증 없이 만들어지는 주관적 태도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신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이지 지식의 문제가 아니다.

'신이 존재한다'는 명제는 믿음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지 지식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전통적인 사회과학자라면 누구나 별다른 이의 없이 동의할 것이다. 객관적 관찰과 검증을 통해 신의 존재에 대해 알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믿을 수는 있지만, 신의 존재를 알 수는 없다. 어떤 사람이 신의 존재를 안다고 주장한다면 사회과학자는 아마도 그가 인식론적 오류에 빠져 있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신의 존재를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 앞에서 사회과학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우호적인 태도는 그의 믿음을 존중하는 것이다. 사회과학자는 그런 주장을 진실이라고 판단하지는 않겠지만, '신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언론 기사에 대해서 굳이 팩트체크를 통해 거짓임을 밝히려 하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신은 존재한다'는 명제는 진실이다. 그가 신의 존재를 믿는 것은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는 신의 존재를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고 주장한다. 그가 보기에, 신의 존재는 지식의 관점에서 진실이

다. ‘신이 존재한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도 진실을 말하는 기사일 수밖에 없다.

사회과학자나 종교인이나 모두 신의 존재와 관련해 지식과 진실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지식과 진실의 내용은 서로 완전히 다르다. 사회과학자의 입장에서 지식과 진실은 관찰과 검증을 통해 구성되는 것이다. 종교인의 경우에, 지식과 진실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다. 사회과학자의 지식과 진실은 오류와 거짓의 반대항이지만, 종교인의 지식과 진실에는 반대항이 없다. 굳이 종교인이 말하는 지식과 진실의 반대항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無)’가 될 것이다. 신을 알지 못하는 자는 무지한 자이다.

홀브라드(Holbraad, 2009)는 제3세계 토착민의 토속신앙을 서구 인류학자가 연구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면서, 토착민과 서구 인류학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오해는 세계관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토착민이 재규어를 숲의 정령이라고 말할 때, 서구 인류학자는 그가 재규어라는 동물을 숲의 정령이라고 믿는다고 해석한다. 서구 인류학자에게 있어 재규어는 동물이기 때문에, 재규어가 숲의 정령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믿음이다. 하지만 토착민에게는 재규어가 숲의 정령이라는 것이 하나의 사실이다.

서구 인류학자가 토착민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이야기를 인식론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이다. 서구 인류학자는 재현의 관점에서 토착민의 이야기를 해석한다. 사물과 그것을 재현하는 개념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에 접근하는 것이다. 그는 재규어라는 동물을 숲의 정령이라는 개념으로 재현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보고자 한다. 이것은 결국 개념과 사물을 연결하는 재현의 진실 여부를 따지는 관습적 정의(conventional definition)에 따르는 것이다. 홀브라드는 토착민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관습적 정의와는 다른 발명적 정의(inventive definition)가 필요하다고 봤다(Holbraad, 2009).

발명적 정의 안에서 사물과 개념은 구분되지 않고 존재론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이해된다. 발명적 정의는 사물이 개념을 규정하는 실재론적 입장과 개념이 사물을 규정하는 관념론적 입장을 초월한다. 발명적 정의에 따르면, ‘신이 존재한다’는 명제는 어딘가에 실제로 존재하는 신과의 관계 안에서 이해되는 것도 아니고 신이 존재한다는 주관적 믿음과의 관계 안에서 이해되는 것도 아니다. ‘신이 존재한다’는 명제는 그 자체가 새로운 세계와 관계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 경우에, ‘신이 존재한다’는 명제의 진실 여부는 관찰과 검증을 통해 어딘가에 있는 신을 발견하는 작업이나 주관적인 믿음 안에서 구성되는 신의 개념을 발견하는 작업을 통해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신이 존재한다’는 명제를 바탕으로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드러난다.

이해를 돕기 위해 극단적인 사례를 생각해보자. 종교인에게 있어, 신은 무오류의 존재이다. 종교인은 만약 어떤 사람이 끔찍한 교통사고에서 살아남았다면 신이 그를 큰일에 쓰려고 은혜를 베푼 것이고 사고로 죽는다면 신이 그를 더 크게 쓰려고 데려간 것이라고 말한다. 어느 경우이든 신의 뜻이 관철된다. 사회과학자가 보기에 이런 생각은 배척되어야 할 인식론적 오류이거나 믿음의 행위로 관용될 수 있는 거짓이다. 하지만 이 생각을 발명적 정의로 이해한다면, 교통사고라는 사건은 무오류의 존재인 신에 의해 의미가 부여되는 새로운 사건으로 정의되고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람과 상황은 새로운 방식으로 존재하게 된다. ‘신은 무오류의 존재’라는 명제가 교통사고라는 사건 겹 의미를 재정의하는 과정을 통해 진실로 드러나는 것이다.

발명적 정의와 비슷한 맥락에서 진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사람은 하이데거(Heidegger)이다. 하이데거는 진실을 존재의 드러남이란 관점에서 접근했다. 그에 따르면, 고전적인 진실 개념은 ‘베리타스(veritas)’의 의미로 이해된다. ‘베리타스’는 어떤 명제와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 사이의 관계가 논리적으로 참인가 거짓인가를 판단함으로써 구성되는 진실 개념이다. 이것은 플라톤 철학이 중세 철학의 기독교적 이원론의 세계관 속에서 재해석되면서 만들어진 개념이며 근대에 실증주의의 대두로 더욱 강화되었다. 하이데거는 ‘베리타스’로서의 진실 개념에서 벗어나 근원적인 진실 개념에 주목하고자 한다.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진실을 의미하는 ‘알레테이아(αληθεια)’가 그것이다. ‘알레테이아’는 어원적으로 은폐에서 벗어남, 즉 드러남이란 뜻을 갖고 있다. 하이데거가 보기에, 진실한 존재란 드러나는 존재이기에 진실은 현상(Phänomen)으로 드러난다. 진실은 세계-내-존재를 기반으로 존재자 자체를 드러내는 일을 한다(Heidegger, 1927/2008, 276쪽).

‘알레테이아’로서의 진실은 개념과 사물을 구분하는 인식론과는 거리를 두는 개념이다. 하이데거가 말하는 ‘알레테이아’로서의 진실은 “존재의 참모습이 드러나는 실존적 상황으로서, 감추어져 있던 기존의 상태가 전복되거나 역전되는 유동적 모습”(이상원, 2019, 35쪽)을 드러낸다. 진실은 참과 거짓에 대한 고정된 기준이나 원리가 아니다. 진실은 “단순히 특정 개인의 이성으로 포착되는 절대적 원칙이나 원리가 아니라, 서로 다른 개별자들의 다양한 판단과 그것들의 갈등(polemos)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무언가를 의미한다”(이상원, 2019, 35쪽). 진실은 이성을 가진 주체가 논리적 판단을 통해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별자가 각자의 방식으로 충돌하고 좌절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기반이라는 것이다.

나는 진실을 인식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론의 문제로 보는 하이데거의 관점을 따르고 최근 인문학 분야에서 대두되는 존재론적 전회의 주장을 참조하면서 언론윤리에서 필요한 새로운 진실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인식론의 관점에서 진실에 접근할 때 우리는 두 가지 태도 중 하나를 취하게 된다. 첫째, 절대주의적 태도가 있다. 보편적 기준에 따라 어디에서나 인정되는 절대적 진실이 존재한다고 보는 태도이다. 둘째, 상대주의적 태도가 있다. 진실을 판별하는 하나의 절대적 기준은 없으며 다양한 기준에 따라 다양한 진실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 태도이다.

진실을 존재론의 문제로 보는 것은 모든 개별자가 각각 진실로 드러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일이며 모든 진술이 각자의 진실을 갖고 있음을 받아들이는 작업이다. 이런 생각은 진실에 대한 상대주의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 A의 관점에서는 C가 진실이고 B의 관점에서는 D가 진실이라는 식의 태도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엄밀히 말하면 진실에 대한 인식론적 접근에서 발생하는 상대주의적 태도이다. 하나의 사물에 대한 여러 다른 의미나 해석을 모두 각자의 특수한 기준에 따른 진실이라고 인정하지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존재론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사물에 대한 여러 다른 진실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사물들이 각자의 진실을 드러낸다. 존재론적으로 보면, 사물의 진실은 그 사물과 분리될 수 없기에 하나의 사물에 대한 여러 개의 진실이 있을 수 없다. 진실이 여럿인 이유는 사물도 여럿이기 때문이다. 관점에 따라 C가 진실일 수도 있고 D가 진실일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C라는 하나의 진실이 존재하고 D라는 하나의 진실이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의 사물에 대해 관점에 따라 다른 여러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물 겹 의미들이 있는 것이다. 존재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사물과 의미는 구분되지 않는 하나이며 그 자체가 진실로서 드러난다.

진실의 문제를 존재론적으로 접근하면 진실과 결부된 윤리의 문제도 다르게 볼 수 있다. 정원규(2010)에 따르면, 하이데거는 윤리(Ethik)의 그리스어 어원인 에토스(ethos)가 거주지란 의미를 갖고 있음에 주목한다. 개별자로서의 인간이 거주하는 곳은 존재이며 존재는 드러남으로서의 진실이다. 결국, 존재 안에서 인간 개별자가 드러나기에, 존재를 사유한다는 것은 근원적인 윤리의 문제가 된다(정원규, 2010, 109쪽). 설민(2016)은 하이데거의 관점에 따르면 개별 인간은 인간이란 존재의 본질을 완수하면서 윤리적이 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인간의 본질은 존재의 드러남에 부응하는 것에 있다. 하지만 과학적이고 기술적이고 실증적인 사고는 이런 윤리적 작업을 왜곡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개인도 혼자만의 힘으로는 윤리적 실천을 할 수 없다. 개인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타인을 필요로 한다(설민, 2016, 130쪽). 하이데거의 논리에 따르면, 존재는 개별 존재자의 상태를 통해 자기를 현시한다. 이상원(2019)은 이 “실존적 필연성이 존재의 드러남(진리)을 향한 투쟁 속에서 특정 정체(polis)의 성립을 둘러싼 다양한 존재자들의 발현과 조화, 분열, 갈등이라는 정치적 양상으로 반영된다”(46쪽)고 주장한다. 이렇게 본다면, 존재론적 진실은 모든 개별자가 하는 활동의 토대이다.

이런 존재론적 진실 개념을 바탕으로 오펜하이머(Joshua Oppenheimer)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분석해 보자. 다큐멘터리 영화는 현실을 재현한다는 가치를 내세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식론적 진실 개념에 따라 구성된다. 우리는 이런 다큐멘터리 영화 장르에서도 존재론적 진실이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오펜하이머는 두 편의 다큐멘터리 영화, 〈액트 오브 킬링(The Act of Killing, 2013)〉과 〈침묵의 시선(The Look of Silence, 2014)〉을 제작했다. 1965년 인도네시아에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잡은 군부에 의해 주도된 민간인 학살 사건을 다룬 이 영화들은 학살의 가해자들이 당시의 사건을 증언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액트 오브 킬링〉은 가해자들이 학살의 현장에서 사건을 증언하고 재연하는 모습을 담고 있고 〈침묵의 시선〉은 피해자의 유가족이 가해자들을 찾아가 사건에 대해 묻고 증언을 듣는 모습을 담고 있다. ‘진실을 말한다’라는 관점에서 이 영화들을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점이 드러난다.

정치적 사건을 다룬 일반적인 다큐멘터리 영화가 피해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과는 달리 이 영화들은 가해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구성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 영화들은 피해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가해자에 의해 은폐되고 왜곡된 사건의 진실을 찾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가해자가 당시의 사건을 해석하고 학살의 구체적 사실들과 학살 당시 가해자들이 느꼈던 감정을 증언하고 재연한다. 일반적인 다큐멘터리 영화가 선(또는 정의)과 악(또는 불의)에 대한 이미 정해진 구획 나누기를 충실히 따르면서 선의 관점에서 악을 고발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면, 이 영화들은 그러한 구획 나누기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은 채 자신이 선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데 집중한다.

〈액트 오브 킬링〉은 학살자였던 안와르 콩고(Anwar Congo)와 동료들이 자신들의 과거 업적(학살 행위)을 재연하는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침묵의 시선’은 피살자의 동생인 아디 루쿰(Adi Rukun)이 살인자들과 방관자들을 만나 학살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물어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영화에서 학살자들은 모두 자신들이 저지른 살인 행위를 매우 자랑스러워하며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 세세히 설명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영웅이며 옳은 일을 했다고 자부한다. 그리고 당시 일어났던 일의 ‘진실’을 후대에 알리기 위해 자신들이 했던 일을 재연하는 영화를 제작하고자 한다.

그런 그들에게 사건이 발생한다. 〈액트 오브 킬링〉에서는 영화 제작이, 〈침묵의 시선〉에서는 아디와의 만남이 그 사건이다. 자신이 저지른 자랑스러운 살인 행위를 재연하는 영화에 출연하던 안와르는 자신이 죽인 사람들이 느꼈을 감정에 공감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구토를 한다. 화를 내지도 않고 공격하지도 않은 채 담담히 사건에 대해 물어보면서 ‘당신이 나의 형을 죽였다고

말하는 아디를 만난 살인자들은 당혹감과 불편함을 감추지 못한다. 영화는 살인자들을 악으로 (재)구성하면서 은폐된 진실을 폭로하지 않는다. 영화에서 살인자들의 진실은 스스로 드러난다.

영화는 학살 사건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나 이해를 비판하면서 올바른 해석이나 이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지 않았다. 영화는 학살 사건의 가해자들이 사건에 대해 회상하고 사건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사건, 가해자, 피해자가 여러 방식으로 만나면서 상호 작용하고 관계를 맺는다. 영화는 다양한 개별 존재자들이 발현, 충돌, 분열, 갈등하면서 새로운 사건 점 의미가 하나의 진실로서 드러나는 것을 보여준다. 영화는 과거에 있었던 학살 사건에 대한 숨겨진 진실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학살과 관련된 새로운 사건 점 의미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드러나는지를 보여준다.

5. 포스트-진실 시대에 언론이 가져야 할 윤리적 태도

개인이 가진 윤리적 문제의 핵심이 인간이란 존재의 본질이 드러나게 하는 데 있다면, 개별 언론의 윤리적 문제의 핵심도 언론이란 존재의 본질이 드러나게 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개별 언론의 활동은 언론이란 존재가 드러나는 실존적 상황이다. 누구도 언론이란 총체를 구체적으로 만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언론이란 무엇인가? 언론은 개별 언론들이 활동하는 거주지이자 생태계이다. 하이데거는 존재란 인간의 자유가 근원적으로 성립하는 장소라고 했다(설민, 2016, 124 쪽). 이 장소 안에서 개별자로서의 인간은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언론도 결국 개별 언론의 자유가 근원적으로 성립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개별 언론들은 스스로 다양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고 사람들, 사건들, 다른 언론들과 상호작용하며 사건 점 의미를 만들면서 생태계를 구성한다.

언론을 개별 언론들의 상호작용 안에서 다양한 사건 점 의미가 구성되는 생태계로 이해한다면, 언론윤리의 문제도 이에 적합한 방식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기존의 언론윤리에서 말하는 진실은 기본적으로 인식론적 진실이다. 인식론적 진실에 대해 절대주의적 태도를 취하게 되면, 언론윤리는 하나의 절대적 진실을 추구하도록 모든 개별 언론들을 강제하는 규범의 형태로 작동할 것이다. 인식론적 진실에 대해 상대주의적 태도를 취하게 되면, 언론윤리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언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⁶⁾.

6) 이 두 태도는 사실 공존할 수 없다.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하나의 진실을 말하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이다

존재론적 진실 개념에 따라 언론윤리를 구상한다면 언론이 가져야 할 윤리적 태도는 어떤 모습을 띠게 될 것인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등장한 새로운 미디어와 서비스들은 전통적 언론(legacy media)과는 달리 비체계적이고 자유롭고 휘발적이고 투쟁적인 방식으로 뉴스와 정보를 생산, 유통한다. 다양한 개별 언론들이 디지털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으며, 각자 네트워크 안에서 이동하고 다른 행위자들과 연결되면서 불확정적 경계를 가진 사건을 만들어낸다. 이와 같은 특징을 존재론적 진실 개념과 연결 짓는 과정에서 수행성(performativity)⁷⁾ 개념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바라드(Barad, 2003)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단순히 담론적 실천을 통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담론적 실천(material-discursive practices)을 통해 물질화된다. 왜냐하면 “담론적 실천과 물질적 현상은 서로 외재성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적인 것과 담론적인 것이 ‘내적 활동(intra-actions)’의 역동성 안에서 상호 연루되어 있다”(Barad, 2003, p. 822)고 보기 때문이다. 모든 존재는 내적 활동을 통해 항상 생성 중이다. 그렇기에 존재(being)와 앎(knowing)도 서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루된 것이다. 이는 자와 알려지는 자, 관찰자와 관찰되는 자 사이의 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관계로 이뤄지는 현상이며 그 관계를 이루는 요소들은 미리 존재하지 않는다. 특수한 ‘내적 활동’이 ‘행위자적 절단(agential cut)’을 실행할 때 차이가 나는 분리가 발생한다. 이 ‘행위자적 절단’을 통해 세계의 일부가 다른 일부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Barad, 2003, pp. 815-817).

예를 들어, 빛은 파동일 수도 있고 입자일 수도 있다. 빛이 파동이나 입자로 존재를 드러내는 것은 관찰자가 장치를 통해 빛을 관찰할 때이다. 장치가 바뀐다면 빛의 존재 양식, 즉 현상도 바뀐다. 빛이 파동인지 입자인지는 관찰 도구인 물질과 빛에 대한 사람들의 담론이 만나는 사건을 통해 현상으로 드러난다. 이런 물질-담론적 실천은 바로 행위자적 절단을 일으키는 장치이다. 존재의 드러남이 진실이라는 하이데거의 말을 이어받는다면, 존재를 현상으로 드러내는 물질-담론적 실천은 진실을 드러내는 장치라고 이해될 수 있다. 각각의 개별자들이 물질-담론적 실천들

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바로 사실과 의견의 구분이다. 사실은 하나이지만 그 사실에 대한 의견은 여러 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의견이 포함되지 않은 평면적 사실을 발견하기는 극히 어려우며 평면적 사실들만을 보도하는 기사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실과 의견의 구분은 전통적 언론윤리에서 진실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

7) 수행성은 오스틴(John L. Austin)에서 시작해 데리다(Jacques Derrida), 들뢰즈와 가타리(Gilles Deleuze & Félix Guattari), 라투르(Bruno Latour), 버틀러(Judith Butler)와 같은 학자들의 주장을 거쳐 바라드(Karen Barad) 등의 신유물론적 페미니즘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쉽게 규정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여기에서는 주로 바라드의 신유물론적 관점에 따라 수행성 개념을 사용하기로 한다.

을 통해 현상으로 물질화되는 과정에서 진실을 드러내면서 서로 갈등하고 투쟁하고 공존하는 것이 결국 생태계이다. 이것은 언론 생태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개별 언론은 특정한 콘텐츠를 네트워크에 진입시키는 행위를 통해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빛이라는 물리적 실체는 있지만, 빛이 입자인지, 파장인지는 관찰 행위가 있을 때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개별 언론은 특정한 언론사, 유튜브 채널, 블로그 등의 물리적 실체를 갖고 있지만, 개별 언론의 진실은 콘텐츠를 네트워크에 진입시키고 다른 언론들과 연결되고 독자들의 '좋아요'를 받을 때 현상으로 드러난다.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 어떤 언론들과 연결되고 어떤 방식으로 수용자와 만나는지에 따라 개별 언론이 만드는 사건 겸 의미는 달라진다. 디지털 네트워크 안에서 개별 언론은 콘텐츠가 구현되는 방식과 수용자의 개입 방식, 다른 콘텐츠와의 연결 방식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개별 언론은 수없이 얽힌 복잡한 관계 속에서 현상으로 나타난다.

수행성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다음 순간을 펼쳐내는 틈, 파열, 간격”(Dewsbury, 2000, p. 475)이라는 점에서 근원적으로 사건과 연결된다. 사건은 원래 완결된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사건은 그 의미상 항상 생성 중이고 변화하는 과정이다. 사건은 이미 계획된 것의 구현이 아니라 우발적인 것의 발현이다. 수행성의 관점에서 보면, 의미나 정체성은 물질-담론적 실체를 통해서 언제나 만들어지는 과정 안에 있다. 그런데 네트워크 안의 물질-담론적 실체를 통해 개별 언론은 일정하게 동일한 방식으로 드러나는 경향성을 갖는다. 개별 언론은 환경의 변화에도 일정한 형식과 내용을 유지하는 항상성(homeostasis)⁸⁾을 가진다. 이런 항상성이 우발적 사건과 만날 때, 개별 언론의 진실은 사건 겸 의미의 형태로 드러난다. 예를 들어, 1920년 창간된 조선일보는 기술적, 담론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100여 년을 꾸준히 유지되어 왔다. 손기정의 마라톤 우승, 1970년대 기자 해직 사태, 1987년 6월 항쟁, 2011년 종합편성채널 허가 등, 많은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조선일보는 하나의 현상으로서 드러나고 사건 겸 의미로 구성되면서 변해왔다.

디지털 네트워크 안에서 돌연 등장하고 다른 것과 이어지고 사라지는 개별 언론이라는 현상은 그 자체가 사건의 일부이며 다른 행위자들과 연쇄적으로 연결되는 수행성을 보여준다. 개별

8) 항상성이란 생명체가 안정적인 상태를 능동적으로 유지하면서 생존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외부 환경이 변하더라도 생명체는 내적 요소들의 관계를 조절하고 기존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생존하고자 한다. 개별 언론도 물질적, 담론적 환경이 변하더라도 내적 요소들의 관계를 조절하면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자 한다. 새로운 기술적 환경에 적합한 방식으로 콘텐츠의 형태를 조절하기도 하고 담론적 환경이 변함에 따라 콘텐츠의 내용을 조절하기도 한다. 하지만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항상성 조절에 실패하게 되면 생명체가 죽게 되듯이, 개별 언론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지나치게 커서 항상성 조절에 실패한다면 개별 언론도 살아남지 못한다.

언론의 항상성은 여러 방식으로 드러날 수 있지만, 콘텐츠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관찰될 수 있다. 개별 언론의 콘텐츠도 그 자체가 하나의 완결된 결과물이 아니라 물질-담론적 실천을 통해 구성되는 현상이다. 바라드는 담론이란 말해진 것이 아니라 말해질 수 있는 것을 제한하거나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담론적 실천은 무엇이 의미 있는 진술인지를 규정한다. 다시 말해, 담론적 실천을 통해 행위자적 절단이 실행될 때 진술의 주체와 대상이 현상으로 드러난다(Barad, 2003, p. 819). 개별 언론은 안정된 상태로 생존하기 위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방식으로 담론적 실천을 하면서 매번 진술의 주체와 대상을 구성한다. 개별 언론의 콘텐츠는 공개되고 유포되고 관찰되고 읽히는 과정 속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구성되는데, 개별 언론은 이 과정을 통해 콘텐츠가 어떤 현상으로서 드러날지는 알 수 없다. 결국, 개별 언론의 콘텐츠는 그 자체로 어떤 사건에 대한 진실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론 생태계 안에서 다른 행위자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건 겸 의미를 만들어가면서 진실을 드러낸다.

흔히 포스트-진실의 시대에 언론을 망치는 것은 언론의 정파성이라고 주장한다(남재일, 2020). 엄밀히 말하자면, 언론이 정파성을 갖는 일은 전통적인 언론윤리 담론이 만든 언론이란 총체가 가진 규범적 이미지를 망치는 일이다. 전통적인 담론에 따르면, 진실을 말하는 언론과 거짓을 말하는 언론이 구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존재론적 진실의 관점에서 본다면, 언론의 정파성은 개별 언론이 자신의 사건 겸 의미를 만들고 드러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다. 개별 언론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콘텐츠를 만든다. 실제로 정파성을 표방하는 정치 유투버들은 자신의 활동이 정치적 투쟁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말한다(정금희, 2021, 68-75쪽). 이런 활동은 특정한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재현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새로운 사건과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존재론적 활동이다. 그렇기에 정치 유투버들은 새로운 사건 겸 의미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신은 물론, 같이 상호작용하는 행위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신은 존재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은 절대주의적 태도를 가진 기존 언론윤리의 관점에서 보자면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사이버 언론이다. 상대주의적 태도를 취하는 언론윤리의 관점에서는 신앙의 표현이라는 이유로 기사에 대한 관용을 베풀겠지만 진지한 기사로 취급하지는 않을 것이다. 존재론적 진실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은 그 기사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자신의 세계와 진실을 드러내는 일이다. 언론은 기사를 쓸 뿐만 아니라 기도회나 종교행사 등을 주최하고 후원하면서 새로운 사건 겸 의미를 만들어내고 진실을 구성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외부에 존재하는 단일한 사회, 단일한 사건에 대해 개별 언론들이 각자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언론 활동이라고 생각해왔다. 모든 개별 언론이 같은 사건을 다룬다면 사

건에 대한 언론들의 재현도 원칙적으로는 내용이 같아야 한다. 이런 절대주의적 관점에 따라 참된 언론과 거짓된 언론을 구분하는 것이 언론윤리의 기본 틀이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언론들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상의 자유시장 혹은 공론장에서 진실을 찾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 결과이지 그들의 진실을 인정하기 때문은 아니다. 이런 언론윤리 담론 안에서 하나의 뉴스는 반대 진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얼마든지 가짜뉴스라고 규정될 수 있으며 그것을 막을 방법도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하나의 뉴스에 대한 진실증명, 그 진실증명에 대한 또 다른 진실증명 등으로 무한히 연쇄되는 진실증명들 안에서 길을 잃거나 중도에서 적당히 봉합하거나 하나의 진실을 강제함으로써 결국 언론이란 존재 자체를 훼손하게 된다.

존재론의 관점에서 언론 활동을 생각해보면, 각각의 개별 언론은 다양한 상호작용 안에서 자신의 세계를 만드는 작업을 한다. 하나의 사건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겹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신유물론적 수행성의 언어로 말하자면, 언론은 담론적 실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담론적 실천을 한다. 언론 활동을 둘러싼 다양한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관계 속에서 개별 언론은 사건 겹 의미를 만들어가며 자신의 진실을 드러낸다. 존재론적 진실은 개별자가 만드는 사건 겹 의미를 통해 드러난다. 개별 언론이 자신의 사건 겹 의미를 만들어간다면, 개별 언론의 활동은 그 자체로 진실이 드러나는 활동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존재론적 진실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이해되어야 한다.

존재론의 관점에서 보면, 언론 생태계에서는 하나의 사건에 대한 여러 의미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건 겹 의미들이 공존한다. 재규어에 대해 동물과 숲의 정령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서로 충돌하면서 어느 하나가 진실이고 다른 하나는 거짓이 되는 것이 아니다. 파동으로서의 빛과 입자로서의 빛이 각각 존재하듯이, 동물로서의 재규어와 숲의 정령으로서의 재규어가 각각 존재하는 것이다. 동물로서의 재규어와 숲의 정령으로서의 재규어는 서로 다른 세계에 속하는 사물 겹 의미이고 진실이다. 이것을 인정하면 비로소 두 세계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진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 어떤 언론은 진실을 말하고 다른 언론은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또는 그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다양한 언론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하도록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다양한 언론이 각자의 사건 겹 의미를 만들면서 각자의 진실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언론은 동등한 존재론적 가치를 가진 진실들이 서로 만나고 상호작용하는 생태계이다.

존재론적 진실이라는 관점에서 언론 활동에 접근하면, 개별 언론의 콘텐츠는 더는 검증을 통해 배척해야 할 가짜뉴스이거나 논쟁을 통해 걸러져야 할 부실한 기사일 수 없다. 개별 언론의 콘텐츠는 같은 세계에 대한 다른 생각이 아니라 다른 세계 안의 다른 생각이다. 이들이 같은 생

태계 안에서 만나려면 서로 해석되고 이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번역 작업이 필요하다. 같은 사건에 대한 다른 의견들이 충돌하는 것이라면 어느 의견이 더 옳거나 진실인가를 가르는 방식으로 상호작용이 일어나겠지만, 서로 다른 사건 겹 의미가 만나는 것이라면 타인의 알지 못하는 언어를 자신의 언어로 번역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이 일어날 것이다. 개별 언론의 사건 겹 의미가 번역을 통해 이해해야 할 다른 진실이라는 점은 언론이 하나의 생태계로 존재하고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언론이라는 생태계 안에서는 개별 언론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들, 사람들, 제도들, 사물들, 동물들 등 인간과 비인간을 망라한 행위자들이 있다. 개별 언론의 진실은 취재와 보도를 위해 사용하는 기술과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포함해 수많은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 안에서 드러난다. 일단 개별 언론의 진실이 드러나면 그 진실들 사이의 상호작용도 일어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진실들이 어떻게 서로를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이 이뤄지느냐 하는 것이다.

타인의 말을 번역하는 행위는 데이빗슨(Davidson)이 내세운 ‘자비의 원칙(Principle of Charity)’을 필요로 한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타인의 말을 번역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의 말이 진실이라고 가정해야 한다(Davidson, 2001, p. 197)⁹⁾. 타인의 말을 진실이라고 가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데이빗슨이 지적했듯이 타인의 말을 번역하는 이유는 그 말에 동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이다(Davidson, 2001, p. XIX).

언론 활동을 존재론적 진실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인식론적 진실 개념에서 비롯된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면서 언론 생태계 안에서 개별 언론들의 공존과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된다. 언론 생태계 안에서 개별 언론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행위자들과의 관계 안에서 스스로 진실을 드러낸다. 개별 언론과 수용자들이 해야 할 일은 수많은 언론의 진실들을 번역하면서 그것들을 이해하는 일이다.

개별 언론의 진실은 사건 안에서 드러난다.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에 참여하는 행위자들

9) 여기에서 진실은 인식론적 관점에서 이해될 수도 있고 존재론적 관점에서 이해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실제로 냉장고 안에 있는 허마를 보면서 타인이 ‘냉장고 안에 허마가 있다’라고 말할 때 번역가는 그의 말이 ‘냉장고 안의 허마’라는 실체와 일치할 것이라는 전제함으로써 그 말을 번역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실은 인식론적 관점에서 이해된 것이다. 다른 한편, ‘냉장고 안에 허마가 있다’라는 말은 타인이 자신이 속한 세계에서 다른 인간, 비인간 행위자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맺는 관계의 결과로 만들어진 사물 겹 의미를 드러낸 것이다. 번역가는 ‘냉장고 안에 있는 허마’라는 실체와는 무관하게 그런 사물 겹 의미가 진실로 존재한다고 전제해야만 그 말을 번역할 수 있다.

이 존재의 진실을 드러낸다. 우선, 다양한 다수의 것들이 혼재해 있는 상황이 있다. 개별 언론은 상황과 그 상황을 구성하는 다수의 것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개별 언론 나름의 사건 검 의미를 만든다. 이 작업을 통해 개별 언론의 세계가 물질-담론적으로 만들어진다. 이 작업은 개별 언론의 폐쇄적 작업이 아니라 열린 네트워크 안에서 다양한 행위자들과의 관계를 통해 이뤄지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항상 개별 언론이 예상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우연한 사건을 발생시킨다. 이 사건은 상황에 대해 개별 언론이 만들어낸 사건 검 의미에 균열을 내고 새로운 사건 검 의미를 만든다.

예를 들어, 어떤 언론이 생산하는 특정인에 대한 혐오와 증오의 콘텐츠는 그것이 생산되자마자 다른 혐오의 콘텐츠, 그것에 반박하는 콘텐츠, 수많은 ‘좋아요’와 ‘싫어요’에 연결되면서 하나의 사건 검 의미로 구성되면서 진실을 드러낸다. 그 진실은 다른 진실을 가진 언론과 수용자에 의해 번역되고 이해된다. 이 과정에서 혐오의 진실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균열과 틈새를 만나며 언론 생태계 안에서 변화한다. 개별 언론이 생산하는 혐오와 증오의 콘텐츠는 일회성으로 생산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 네트워크 안에서 계속 변하면서 관련된 행위자들을 변화시킨다.

새로운 언론윤리 담론의 바탕이 되는 진실 개념은 언론이 추구하고 달성해야 하는 목적이 아니라 언론의 존재 토대로서의 진실이다. 진실을 언론 활동의 목적이 아니라 언론 존재의 토대로 본다면, 언론은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실천의 장소로 이해된다. 개별 언론이 어떤 내용의 기사를 생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별 언론이 어떤 관계 속에서 콘텐츠를 생산하고 자신을 드러내느냐가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언론윤리 담론은 개별 언론에게 이러저러한 내용의 콘텐츠를 생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새로운 언론윤리 담론은 개별 언론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할 것이다. 존재론적 진실에 기반해 설립될 수 있는 언론의 윤리적 태도의 기본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언론은 하나의 총체적 실체가 아니라 인간, 비인간 행위자들의 네트워크로 구성된 생태계로 이해되어야 한다. 개별 언론은 다양한 인간, 비인간 행위자들과 연결되는 네트워크 안에서 활동해야 한다. 다른 행위자와의 연결을 차단하고 고립된 채 자기 세계의 수용자와만 만나고자 하는 언론은 존재의 드러남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윤리적으로 옳은 언론이 아니다. 개별 언론은 자신의 수용자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기술과 미디어를 향해 열려있어야 한다. 이것은 개별 언론이 언론 생태계의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론 생태계 안에서 끊임없이 구성되고 해체되는 네트워크는 개별 언론의 사건 검 의미가 만들어지는 우발적 사건의 조건이 된다.

둘째, 개별 언론은 언론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항상성을 유지해야 한다. 개별 언론은 외부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내적 요소들을 조절하는 작업을 통해 언론의 조직, 기술, 교육, 콘텐츠 등에 대한 물질-담론적 실천을 전개해야 한다. 향상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개별 언론의 노력은 개별 언론이 속한 환경에 대한 개별 언론의 인식을 정교하게 만듦으로써 언론 생태계가 원활하게 작동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언론 생태계 자체를 풍요롭게 발전시킨다.

셋째, 개별 언론에게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언론 생태계는 사건 검 의미를 만드는 개별 언론들의 거주지이다. 외부에서 주어진 진실의 기준에 따라 개별 언론의 활동이 재단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언론의 상호작용 활동을 통해 만들어지는 사건 검 의미가 존재의 진실을 드러낸다. 개별 언론은 자신의 진실이 번역되도록 모두에게 자신이 만드는 세계를 공개해야 하며 다른 언론의 진실을 번역하고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별 언론이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면서 다른 행위자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개별 언론에게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식론적 진실 개념을 통해 언론이 얼마나 '제대로' 세상을 재현하느냐를 판단하고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면서 언론 활동에 개입해왔다. 언론 생태계에서 개별 언론이 수행하는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재현의 논리에 기반한 진실 패러다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언론은 세계의 밖에서 세상을 관찰하는 단일한 총체일 수 없다. 단지 개별 언론들이 생태계 안에서 다른 존재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세상을 구성할 뿐이다. 개별 언론의 자유로운 상호작용이 언론의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지 언론이 추구해야 하는 진실이 개별 언론의 활동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언론의 진실은 '언론이 세상을 얼마나 제대로 재현하느냐'가 아니라 '개별 언론이 자신의 진실을 얼마나 충실히 드러내는가?' 하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6. 나가며

이 논문에서 나는 하이데거의 진실 개념을 바탕으로 신유물론의 수행성 개념과 존재론적 전회의 주장을 이용해 존재론적 진실 개념을 구상하고 이를 통해 언론이 가져야 할 새로운 윤리적 태도를 생각해보고자 했다. 존재론적 진실이란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건 검 의미로 행위자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존재론적 진실 개념은 기존의 언론윤리 담론을 구성하는 인식론적 진실 개념들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 논문의 주장은 기존의 담론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언론윤리에 접근하자고 제안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언론윤리 담론을 바탕으로 이 논문을 읽으면 내용을 오해할 수

있다. 개별 언론이 각자 고유한 진실을 가진다는 주장을 개별 언론마다 자신의 관점에 따라 사건을 해석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할 경우, 논의는 결국 가장 올바른 관점이나 해석은 무엇이나는 기존 담론의 오래된 질문으로 귀결된다. 모두에게 강제될 수 있는 하나의 진실을 세우거나 각자가 가진 나름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하고 토론해 어떤 합의된 진실에 이르는 것이 그동안 이 질문과 관련해 제시된 두 가지 선택지였다.

개별 언론이 각자 고유한 진실을 가진다는 것은 개별 언론이 고유의 사건 검 의미를 만들면서 고유의 세계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 여러 다른 관점의 의견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건 검 의미들이 있는 것이다. 개별 언론의 사건 검 의미, 즉 개별 언론의 진실은 모두 다르다. 모든 개별 언론이 인정해야 하는 하나의 절대적 진실, 하나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토론을 통해 합의에 이르거나 공유할 수 있는 진실과 세계도 없다. 언론 생태계는 유니버스(universe)가 아니라 멀티버스(multiverse)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별 언론이 취해야 하는 윤리적 태도의 핵심은, 다른 언론과 단절되지 않는 것, 그리고 다른 언론의 진실을 번역하려 노력하는 것, 두 가지이다. 개별 언론은 다른 행위자들과 항상 연결되면서 자신의 사건 검 의미를 공개하고 다른 언론의 사건 검 의미를 번역해야 한다. 사건 검 의미는 고정된 완성체가 아니라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 안에서 계속 변하는 유동적인 것이다. 사건 검 의미가 유동적이라면 그것의 번역도 유동적이다. 행위자들과의 계속된 상호작용 안에서 사건 검 의미를 만들어가면서 개별 언론은 현상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존재론적 진실은 언론이 도달해야 하는 목적으로서의 진실도 아니고 제대로 된 언론을 판정하는 기준도 아니다. 그것은 언론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이자 언론의 존재가 드러나는 장소이다.

이 논문에서 말하는 진실의 문제는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이고 결국 삶의 문제이다. 개인이 삶을 충실히 산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는 일, 즉 진실이 드러나는 일이다. 마찬가지로 개별 언론이 충실히 언론 활동을 하는 것은 언론으로서의 존재가 드러나고 진실이 드러나는 일이다. 존재론적 진실의 관점에서 볼 때, 언론윤리는 언론이 얼마나 충실한 활동을 하느냐와 관련된 것이지 얼마나 사건을 잘 재현하느냐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으로 다양한 형태의 개별 언론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는 지금, 신문사나 방송국과 같은 기존의 제도화된 거대 언론들이 지배하던 시대에 통용되던 인식론적 진실 개념에 기초해 구성된 언론윤리 담론은 현재의 언론 생태계에 적용되기 어렵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어디에서든 어떤 사건이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면서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 보여주는 개별 언론들이 우후죽순 등장하고 사라지는 상황에서 언론의 진실과 윤리는 더욱 삶의 문제가 되어 간다.

포스트-진실 시대의 언론윤리에 대해 이 논문에서 제시된 주장은 물론 아직 탐색적이고 불완전하다. 하지만 언론윤리에 대한 이 논문의 제안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언론 생태계를 구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개념들과 가치들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References

- Bae, S.-H. (2005). Jinli, Jinsil, Cham: Three Korean translations of 'Truth'.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84, 129-155.
- Barad, K. (2003). Posthumanist performativity: Toward an understanding of how matter comes to matter. *Signs*, 28(3), 801-831.
- Bird, E., & Dardenne, R. W. (1988). Myth, chronicle and story. In J. W. Carey (Ed.), *Media, myths and narratives: Television and the press* (pp. 67-86). London, UK: Sage.
- Boesman, J., & Meijer, I. C. (2018). Nothing but the facts?: Exploring the discursive space for storytelling and truth-seeking in journalism. *Journalism Practice*, 12(8), 997-1007.
- Butler, J. (2006). *Gender trouble*. New York, NY: Routledge.
- Carlson, M. (2018). The information politics of journalism in a post-truth age. *Journalism Studies*, 19(13), 1879-1888.
- Carson, A., & Farhall, K. (2018). Understanding collaborative investigative journalism in a "post-truth" age. *Journalism Studies*, 19(13), 1899-1911.
- Cohen, L. J. (1978). The coherence theory of truth. *Philosophical Studies*, 34, 351-360.
- Davidson, D. (2001). *Inquiries into truth and interpretation* (2nd ed.). Oxford, UK: Clarendon Press.
- Dewsbury, J. D. (2000). Performativity and the event: Enacting a philosophy of difference.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18, 473-496. (DOI: 10.1068/d200t).
- Ferré, J. P. (2008). A short history of media ethics in the united states. In L. Wilkins & C. G. Christians (Eds.), *The Routledge Handbook of Mass Media Ethics* (pp. 29-43). New York, NY: Routledge.
- Foucault, M. (1966). *Les mot et les choses*. Paris, France: Gallimard.
- Gans, H. (1979). *Deciding what's news: A study of CBS evening news, NBC nightly news, newsweek, and time*. New York, NY: Pantheon Books.
- Glanzberg, M. (2018). *The Oxford Handbook of truth*,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Glasser, T. L., & Ettema, J. S. (1989). Investigative journalism and the moral order. *Critical Studies in Media Communication*, 6, 1-20.
- Haack, S. (1987). Realism. *Synthese*, 73(2), 275-299.
- Heidegger, M. (1927). *Sein und zeit*. Halle, Germany: M. Niemeyer.
- Hersey, J. (1980). The legend on the license. *Yale Review*, 70, 1-25.

- Holbraad, M. (2009). Ontography and alterity: Defining anthropological truth. *Social Analysis*, 53, 80-93.
- James, W. (1907). Pragmatism's conception of truth. *The Journal of Philosophy, Psychology and Scientific Methods*, 4(6), 141-155.
- Jeong, W.-G. (2010). A metaphysical consideration of the nature of morality? Monism or dualism?. *CHUL HAK SA SANG : Journal of Philosophical Ideas*, 38, 99-134.
- Jung, K. H. (2021). How the partisanship is being revealing in Youtube political channels by personal broadcasting in Korea? :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young political Youtubers. *Journal of Communication Research*, 58(3), 46-109.
- Jung, S. (2021). A study to increase the influence of fact check news : Focusing on the effect of fact check news on the audience.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35(1), 235-282.
- Kim, S. (2019). Regarding the truth in/about the 'post-truth' era : A view on journalism and the politics of truth. *Media & Society*, 27(4), 49-103.
- Kim, T. O. (2008). Theoretical approach to the research of communication ethics in Europe and US. *The Korean Civic Ethics Review*, 21(2), 215-234.
- Lehrer, K. (1986). The coherence theory of knowledge. *Philosophical Topics*, 14(1), 5-25.
- Lee, J.-K. (2019). Post-truth society and the role of journalism. *Press Arbitration*. 152, 78-81.
- Lee, S. (2019). The lively possibility and tension of truth experience : Heidegger's interpretation of Plato in his lecture Parmenides and the meaning of political existence.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53(5), 31-51.
- Lilly, W. S. (1892). *On right and wrong*. London, UK: Chapman & Hall.
- Maras, S. (2013). *Objectivity in journalism*. Cambridge, UK: Polity Press.
- Milton, J. (1644). *Areopagitica*.
- Nam, J.-I. (2010). The process of construction of Korean journalism ethics as job ideology.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50, 73-93.
- Nam, J.-I. (2020). Divisions and gaps in the Korean public sphere. *Literature & Society*, 33(4), 6-22.
- Rhee, J. W. (2013). Communication and truth. *Communication Theories*, 9(4), 100-135.
- Rhee, J. W. (2017). A Habermasian perspective to journalism ethics at the digital news age. *Communication Theories*, 13(3), 86-128.
- Seol, M. (2016). An ethical reinterpretation of Heidegger's thought of being in comparison with classical

metaphysical ethics. *Journal of the Society of Philosophical Studies*, 115, 109-136.

Song, K.-H. (2002). Newspaper and truth. In K.-H. Song (Ed.), *Democratic press, national press I*(pp. 109-116). Gyeonggi: Hangilsa.

Sung, H. Y. (2019). The technological revolution and the crisis of journalism. *Kwanhun Journal*, 61(3), 3-8.

Waisbord, S. (2018). Truth is what happens to news : On journalism, fake news, and post-truth. *Journalism Studies*, 19(13), 1866-1878.

Ward, S. (1999). *Pragmatic news objectivity: Objectivity with a human face*. Cambridge, MA: The Joan Shorenstein Center on the Press, Politics and Public Policy, John F.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Harvard University.

Zelizer, B. (2004). When facts, truth, and reality are God-terms: On journalism's uneasy place in cultural studies. *Communication and Critical/Cultural Studies*, 1(1), 100-119.

최초 투고일 2022년 08월 30일

게재 확정일 2022년 11월 12일

논문 수정일 2022년 11월 18일

부록

- 김수미 (2019). “포스트-진실” 시대의 진실에 대하여 : 저널리즘과 진실의 정치에 대한 소고. <언론과 사회>, 27권 4호, 49-103.
- 김춘옥 (2008). 歐美 미디어윤리 연구진화에 대한 이론적 접근 : 언론윤리의 이론화를 중심으로. <한국시민윤리학회보>, 21권 2호, 215-234.
- 남재일 (2010). 직업이데올로기로서의 한국 언론윤리의 형성과정. <한국언론정보학보>, 50호, 73-93.
- 남재일 (2020). 한국 공론장의 분열과 틈새. <문학과 사회>, 33권 4호, 6-22.
- 배식한 (2005). 진리, 진실, 참. <철학>, 84호, 129-155.
- 설민 (2016). 고전 형이상학적 윤리학과 비교를 통한 하이데거 존재사유의 윤리학적 재해석. <철학 연구>, 115호, 109-136.
- 성한용 (2019). 기술혁명과 저널리즘의 위기. <관훈저널>, 61권 3호, 3-8.
- 송건호 (2002). 신문과 진실. 송건호 (편), <민주언론 민족언론 1> (109-116쪽). 경기: 한길사.
- 이상원 (2019). 진리 경험의 역동성과 긴장성 : 하이데거의 『파르메니데스』에 나타난 플라톤 해석의 정치적 함의. <한국정치학회보>, 53권 5호, 31-51.
- 이재경 (2019). 탈진실 사회와 저널리즘의 역할. <언론중재>, 152권, 78-81.
- 이준웅 (2013). 소통은 진리를 위한 것인가? <커뮤니케이션 이론>, 9권 4호, 100-135.
- 이준웅 (2017). 디지털 뉴스 시대의 언론 윤리. <커뮤니케이션 이론>, 13권 3호, 86-128.
- 정금희 (2021). 정치 유튜브 개인 방송에서 ‘정파성’은 어떻게 발현되는가? : 청년 정치 유튜버의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58권 3호, 46-109.
- 정성욱 (2021). 팩트체크 뉴스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연구 : 팩트체크 뉴스가 수용자에게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35권 1호, 235-282.
- 정원규 (2010). 도덕의 본성에 관한 형이상학적 고찰. <철학사상>, 38호, 99-134.
- Butler, J. (2006). *Gender trouble*. New York, NY: Routledge. 조현준 (역) (2008). <젠더 트러블>. 경기: 문학동네.
- Foucault, M. (1966). *Les mot et les choses*. Paris, France: Gallimard. 이규현 (역) (2019). <말과 사물>. 경기: 살림.
- Heidegger, M. (1927). *Sein und zeit*. Halle, Germany: M. Niemeyer. 전양범 (역) (2008). <존재와 시간>. 서울: 동서문화사.

Milton, J. (1644). *Areopagitica*. 임상원 (역) (1998). <아레오파지티카: 존 밀턴의 언론 출판 자유에 대한 선언>. 경기: 나남.

존재론적 접근을 통한 포스트-진실 시대의 언론의 윤리적 태도 연구

주형일

(영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 논문은 포스트-진실 시대의 언론의 윤리적 태도와 관련해 기존 언론윤리 담론의 토대가 된 진실 개념과는 다른 진실 개념을 통해 윤리적 태도에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일반적으로, 일치성으로서의 진실 개념은 객관주의 저널리즘 담론을 구성하는 핵심이었고 일관성으로서의 진실 개념은 탐사 저널리즘 담론을 지탱해 왔다. 유용성으로서의 진실 개념은 공공 저널리즘 담론을 구성하는 데 기반이 된다. 이 진실들은 언론이 추구하고 달성해야 할 목적으로 제시된다. 이 논문은 언론이 도달해야 할 목적으로서의 진실이 아닌 언론의 존재 토대로서의 진실에 대해 고찰한다. 이 논문은 하이데거의 진실 개념을 바탕으로 신유물론의 수행성 개념과 존재론적 전회의 주장을 참조해 존재론적 진실 개념을 고안하고 이를 언론의 새로운 윤리적 태도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핵심 개념으로 제안한다. 존재론적 진실이란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건 겸 의미로 행위자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언론 생태계는 개별 언론들이 물질-담론적 실천들을 통해 현상으로 나타나는 과정에서 각자의 진실을 드러내면서 서로 충돌하고 번역하고 공존하는 곳이다. 개별 언론은 주위 환경이나 다른 언론들, 수용자들과의 관계 안에서 언론으로서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다른 언론의 진실을 번역하고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언론이 가져야 할 윤리적 태도이다.

핵심어 : 존재론적 전회, 알레테이아, 언론윤리, 수행성, 존재론적 진실